팀모임 묵상

2021.6.30.(수)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드려야만 가능함. 과부도 하나님께 드렸고, 바리새인도 드렸지만 과부만 칭찬받았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결국 칭찬받는 사람은 손님으로 왔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사람이었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때 관계가 깊어지게 됨. 예레미야와 복음서를 보고 있음. 그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 더욱 헌신해야 할 것은, 한 말씀을 보더라도 천천금은보다 더 귀한 말씀이 된다는 믿음.

롬1:28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두심. 더러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음.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다 나의 모습임. 나의 삶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과 같은 말씀이었음. 나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단어도 있음.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되는 단어가 많아진 것처럼 보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 나 밖에 몰랐던 것. 나의 친구나 바라는 사람들이 나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해 버렸음.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보다는 나 자신이 꽉 차있을 때도 있음. 생각해 보면 행복하지 않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만이 내 마음이 행복하게 됨. 사55:1-2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행복을 주님을 만남으로 얻을 수 있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내 마음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차 있음. 다시 한 번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게 됨.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하게 됨. 그런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 감사.

렘2:2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시는가? 귀에 외치라고 말씀하심.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었기 때문. 자신들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 씨 뿌리지 못하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찬양했는가?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음. 처음 사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심. 렘8:18-2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번뇌하는 마음이 잘 나와 있음. 이방 바벨론에 의해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심. 주님의 마음에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계심. 책망할 때마다 슬퍼하심. 나도 상하여 슬퍼하고 놀람을 겪었다고 말씀하심.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임. 나와 함께 고난을 슬퍼하시는 주님.